

# 현안과 과제

레드백, 하드커런시 되나  
- 급증하는 위안화 무역결제 수요

## Executive Summary

### □ 레드백(위안화), 하드커런시 되나 - 급증하는 위안화 무역결제 수요

#### ■ 미중 환율전쟁과 위안화

2011년 10월, 미국 상원에서 “환율 감시 개혁법” 통과와 11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중국이 제외되면서 제2차 미중간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준비해온 레드백(Red Back)의 하드커런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과 대응할 위안화의 향방이 주목된다.

#### ■ 위안화의 하드커런시 어디까지 왔나

(위안화 하드커런시 가능성)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은 하드커런시 조건에 근접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개방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GDP비중 세계 2위, 재화수출 세계 1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등 탄탄한 경제력을 확보했고, 물가 및 환율변동성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통화가치의 신뢰성도 보완되었다. 다만 자본거래의 개방화가 낮은 것이 하드커런시로 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위안화 해외투자과 역외 위안화의 역내투자 항목을 개방하면서 개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위안화 하드커런시 전망

(위안화 위상 상승) 글로벌 재정위기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은 내년도 8% 중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로 전환되는 미 달러와 유로화에 비해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무역 결제수요 급증)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무역결제 지역 제한을 전면 개방하였고, 홍콩 위안화 역외 거래 중심도 성공적으로 구축되면서 위안화는 현재 하드커런시로 가는 심화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위안화 금융결제 통화 증가) 또한 중국은 한국, 홍콩 등 국가들과 위안화 통화스왑 확대와 홍콩 외에도 런던, 싱가포르 등 위안화 역외 거래중심을 확장하여 위안화 금융결제 수요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게다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건립할 계획이어서 자본계정 개방화와 금융시장 발전은 이 기간 동안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핫머니 등 금융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위안화 하드커런시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력 강화, 위안화 무역결제 증가, 금융 개방 및 발전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한국은 위안화 역외 금융 및 무역 허브로의 부상이 예상된다.

(과제)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시장 진출 확대 모색,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SDR 편입 준비, 무역 결제통화 확대에 따른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 1. 미중 환율전쟁 확산과 위안화

- 미중 환율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레드백(위안화)<sup>1)</sup>의 하드커런시화<sup>2)</sup>를 가속화
  - 1,2차 미중 환율전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를 겨냥해 미국 의회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통과시킴
    -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재정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동년 10월 12일 미 상원에서 작년과 유사한 “환율 감시 개혁법”을 통과시킴
    - 미국측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이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논리이며, 중국측은 위안화 절상이 미국실업률과 무역적자 해결과 무관하다고 주장
  - 미중 환율전쟁 심화가 경제영토 전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위안화 하드커런시를 가속화하여 위상을 높일 계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큼
    - 2011년 11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동아시아 통상블록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영토 전쟁으로 확산 조짐
    - 위안화 위상이 미 달러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이 미중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믿고 있는 중국은 조만간 위안화 하드커런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큼

### <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전쟁 >

		제1차 전쟁	제2차 전쟁
발생 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원인	미국 입장	-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이 글로벌 불균형 초래	左同
	중국 입장	- 미국내부 문제	- 위안화 절상은 미국실업률 및 무역적자 해결과 무관
미국의 대응		-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 (9월)	- 환율 감시 개혁법(8월) - G20, APEC, EAS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 재차 강조 - TPP에서 중국 제외(11월)
중국의 대응		- 위안화 점진적 절상 고수 - 위안화 하드커런시 준비 시작(2009. 9)	- 동북아 FTA 추진(11월) - 위안화 하드커런시 가속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 1) 레드백(Redback)이란 그린백(Greenback, 달러화)에 빗대어 위안화를 일컫는 말
- 2) 하드커런시(Hard Currency)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기축통화(Key Currency)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를 말하며,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통화는 소프트커런시(Soft Currency)라 함

## 2. 위안화의 하드커런시 어디까지 왔나

### ○ (하드커런시 가능성) 중국의 경제규모 증가, 위안화의 통화가치 안정성, 금융시장의 발전 등으로 위안화는 하드커런시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

- 경제 규모 : GDP 비중은 세계 2위, 재화수출 세계 1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 부상
- 2010년 세계 GDP에서 중국의 비중은 9.3%로 미국 24.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8.7%인 일본을 앞선 상태
- 세계 총수출 대비 중국의 재화 수출 비중은 2009년 8.8%로 독일 8.2%를 추월하며 단일국가로는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 대외준비자산은 2006년 초 약 8,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을 추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가로 부상. 9월 현재 약 3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한 상태

< 세계 GDP 대비 각국의 GDP 비중 >  
(단위 :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1995	24.9	5.3	8.5	17.7	2.4
2000	30.9	4.1	5.9	14.5	3.7
2005	27.7	4.7	6.1	10.0	5.0
2006	27.1	4.6	5.9	8.8	5.5
2007	25.2	4.6	6.0	7.9	6.3
2008	23.4	4.6	5.9	8.0	7.4
2009	24.1	4.6	5.7	8.7	8.6
2010	23.1	4.1	5.2	8.7	9.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 세계 수출 대비 각국의 수출 비중 >  
(단위 :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1995	12.0	5.9	10.8	9.1	3.1
2000	11.0	4.2	7.8	6.8	3.5
2005	7.9	3.8	8.5	5.2	6.6
2006	7.8	3.6	8.4	4.9	7.3
2007	7.6	3.5	8.7	4.7	8.0
2008	7.4	3.4	8.4	4.5	8.2
2009	7.7	3.4	8.2	4.2	8.8
2010	8.2	3.3	8.2	5.0	10.2

자료 :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주 : 재화 수출 기준

### □ 기축통화의 충족 요건

- 기축통화라는 용어는 미국 예일대 트리핀(Robert Triffin)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Tavlas(1991)<sup>3)</sup>, Chinn and Frankel(2008)<sup>4)</sup> 등이 그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첫째, 경제규모. 해당국가가 세계 GDP와 무역 규모에서 경제력을 갖춰야 함
- 둘째, 통화가치의 안정성. 해당 국가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낮아야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신뢰성이 높아짐
- 셋째, 결제통화. 거래통화로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고 규모가 커야함
- 넷째, 금융시장의 개방도.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대외 개방 정도가 높아야 함
- 다섯째, 금융시장의 발전. 자국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고 발달된 유통시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통화가치의 안정성** : 중국의 물가변동성과 환율변동성은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안화 수요는 아직 낮은 수준
  - 1995~2010년 중국의 평균 물가변동성은 1.3%로 여타 통화국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9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임
  - 환율변동성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1%로 전년대비 4.2%p 상승했으나 2009년부터는 하락하여 2010년에는 1.9%로 미국 2.3%, 일본 3.2%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이므로 시장 환율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는 차이가 존재함
  - 국제통화에 대한 수요에서 보면 달러와 유로화가 2000년 이후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나, 기타에 속한 위안화의 수요는 여전히 미약함

< 주요 통화국의 물가 및 환율 변동성 추이 >

(단위 : %)

	미국		일본		중국	
	물가	환율	물가	환율	물가	환율
1995	2.2	1.4	0.2	10.9	4.8	3.8
2000	0.3	2.5	0.2	2.1	0.6	2.9
2005	0.6	1.4	0.2	4.8	0.8	3.0
2006	1.0	1.4	0.3	2.2	0.5	1.8
2007	0.8	3.0	0.4	1.8	1.8	1.9
2008	1.7	3.8	0.8	8.2	2.5	6.1
2009	1.4	3.7	0.4	3.7	1.2	4.1
2010	0.6	2.3	0.3	3.2	1.0	1.9
평균	0.6	2.2	0.4	4.2	1.3	2.8

자료 : CEIC, BIS.

- 주 : 1) 물가변동성은 전년동기 월별 CPI 상승률의 표준오차.
- 2) 환율 변동성은 실질실효환율의 표준오차.

< 세계 외환보유액의 각국 통화 비중 >

(단위 : %)

	달러	파운드	엔	유로	스위스 프랑	기타
	1995	59.0	2.1	6.8	-	0.3
2000	71.1	2.8	6.1	18.3	0.3	1.4
2005	66.9	3.6	3.6	24.1	0.1	1.7
2006	65.5	4.4	3.1	25.1	0.2	1.8
2007	64.1	4.7	2.9	26.3	0.2	1.8
2008	64.1	4.0	3.1	26.4	0.1	2.2
2009	62.1	4.3	2.9	27.6	0.1	3.1
2010	61.8	4.0	3.8	25.9	0.1	4.5

자료 :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

3) Tavlas, "On the International Use of Currencies: The Case of the Deutsche Mark", IMF, January 1990.

4) Chinn, Menzie and Jeffrey Frankel, "Why the Euro Will Rival the Dollar", International Finance, 2008.

- **금융시장 개방 및 발전** : 중국은 자본거래의 개방화가 매우 낮으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은행부문에 비해 자본시장의 규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
  - AREAER(2008)을 보면 주요 국가의 자본거래 개방은 11개 항목 중 1항목 (외국인 직접투자)을 제외하고 영국의 개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과 독일은 상업신용, 담보 및 보증, 외국인 직접투자 청산, 개인 자본유출입 등 4개 항목을 모두 통제하고 있어 개방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
  - 중국은 2008년 기준, 11개의 자본항목 중 모든 항목에서 통제하고 있어 자본 개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1년 1월 중국기업의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허용과 동년 10월 외국인의 위안화 직접투자 역시 가능해지면서 자본계정의 개방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 규모는 2010년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금융자산 비중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285%로 미국 165%, 일본 211%에 비해 크게 앞서있지만 자본시장 규모를 대표하는 시가총액은 일본보다 작은 수준

< 주요 국가의 자본자유화 수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증권거래	●	○	●	●	●	●
단기 금융시장	●	○	●	●	○	●
집합투자증권*	●	○	●	●	○	●
파생 및 금융상품	○	○	●	●	○	●
상업신용	○	○	○	○	○	●
금융신용	○	○	●	●	●	●
담보, 보증	○	○	○	○	○	●
외국인 직접투자	●	●	●	●	○	●
외국인 직접투자 청산	○	○	○	○	○	●
부동산 거래	○	○	●	●	●	●
개인 자본유출입	○	○	○	○	○	●

자료 : IMF, *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 and Exchange Restrictions*, 2008.  
 주 : 1) ○는 개방, ●는 규제.  
 2) 집합투자증권(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말함.

<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 규모 >

(단위 : 십억 달러, %)

		미국	일본	중국
명목 GDP		14,526	6,400	5,929
외환보유액		52	1,096	2,847
금융 자산	은행 자산	10,526	9,701	14,174
	시가총액	13,394	3,828	2,716
금융시장 규모 (금융자산/GDP)		165	211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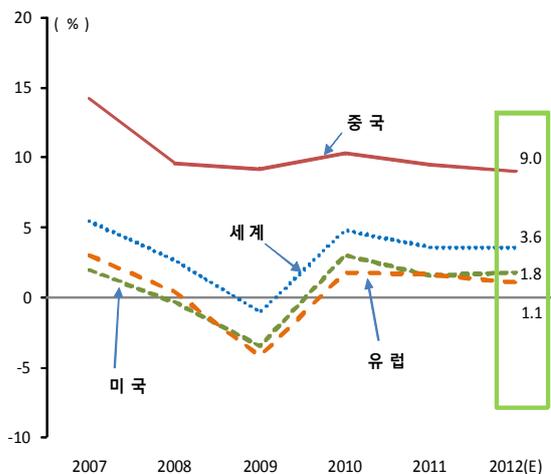
자료 : CEIC, WFE.  
 주 : 1) 2010년 말 기준.  
 2) 시가총액은 미국(NYSE), 일본(TSE), 중국(SSE) 기준.

### 3. 위안화 하드커런시 전망

○ (위안화 위상 상승) 향후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재정 위기에 따른 미 달러 약세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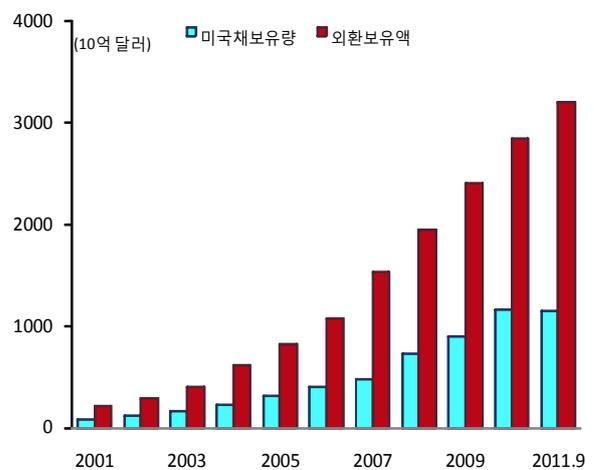
- 2012년 미국 및 유로존의 1%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6%와 중국의 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IMF, 세계은행 및 주요 IB들은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중반 ~ 9% 초반 사이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중국경제의 연착륙 예상
- 미국 및 유로존의 경기 둔화는 미 달러와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져 중국이 미 달러 자산에 치중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강세 가능성이 커짐
  -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7% 절상된 상태임
  - 중국은 외환보유고 다변화정책에 따라 달러화 자산을 점차 줄일 것으로 예상. 외환보유액 대비 미국채 보유비중은 2010년 말 41%에서 2011년 10월 현재 36%로 5%p 감소해 중국 외환보유고 다변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자산 축소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미재무성

○ (위안화 무역 결제수요 급증)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 제한 철폐와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거래 중심 구축으로 앞으로 위안화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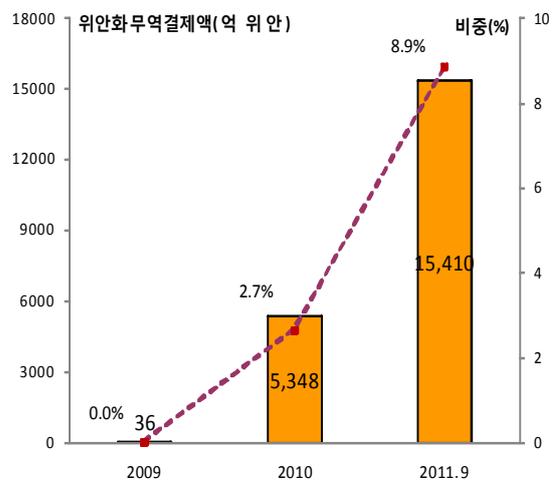
-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 제한 철폐로 사실상 위안화는 하드커런시 심화단계로 진입 시작
  -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은 2009년 7월 상해를 포함한 주요 5개 도시와 ASEAN 간 거래로 한정했으나 2010년 6월 무역결제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넓혔고 중국 내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하드커런시 1단계 완성
  - ASEAN,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지역에서의 결제 및 지역투자는 물론 통화스왑도 꾸준히 확대하면서 위안화 하드커런시 2단계 진입 시작
- 홍콩을 위안화 역외 거래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위안화 유동성 증가 모색
  - 2009년 36억 위안이던 무역결제액은 2010년 5,348억 위안으로 크게 급증. 2011년 3/4분기까지 15,410억 위안으로 2010년 보다 약 3배 급증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총액 중 위안화 무역결제액 비중은 2009년 0.02%에서 2010년 3/4분기 8.9%로 크게 증가
  - 홍콩 내 위안화 예금은 2011년 8월 현재 6,090억 위안으로 2009년 627억 위안보다 약 11배 증가하며 위안화 유동성 확보 진전

< 위안화 하드커런시 단계와 전략 >

단계	전략적 특성
1단계 (기초 단계)	- 중화권내 결제통화 · 역외 :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 본토 : 지역제한 철폐
2단계 (심화 단계)	- 아시아, 신흥개도국 내 결제 및 투자통화 · ASEAN 지역 → 한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 · 위안화 직접투자 허용 · 통화스왑 확대
3단계 (완성 단계)	- 전세계로 확대 · 하드커런시 지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추이 >



자료 : CEIC.

주 : 비중은 위안화무역결제액 / 중국 수출입 총액.

○ (위안화 금융 결제통화 증가) 위안화 통화스왑과 위안화 역외 거래중심 확대를 통해 위안화 금융결제 수요를 증가 모색 전망

- 국가 간 통화스왑 확대를 통해 위안화의 결제 및 거래 확대 모색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0년 위안화의 일일평균 외환거래 비중은 0.9%로 달러,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보다는 낮지만 2004년에 비해 9배 급증하며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
  - 2008년부터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며 위안화의 결제 및 거래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음
- 위안화의 결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런던 등 역외 금융 허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상반기 홍콩과의 위안화 무역결제 8,036억 위안으로 중국 무역결제 규모의 약 84%를 점유하며, 홍콩을 역외 거래 중심으로 고착화
  - 위안화 역외 허브를 기존 홍콩에서 세계 외환시장의 1, 4위 국제금융중심인 런던과 싱가포르로 확장 예상. 특히 중국-동남아 간 교역이 전체 중국 무역액의 약 10%인 만큼 싱가포르는 동남 아시아권과의 위안화 역외 거래의 교두보 역할 기대

<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일자 >

(단위 : 억 위안)

시기	국가	스왑규모
2008.12	한국	1,800
2008.12	홍콩	2,000
2009. 2	말레이시아	800
2009. 3	벨로루시	200
2009. 3	인도네시아	1,000
2009. 3	아르헨티나	700
2010. 7	싱가포르	1,500
2011. 4	뉴질랜드	250
2011. 4	우즈베키스탄	7
2011. 5	몽골	50
2011. 6	카자흐스탄	70
2011.10	한국	3,600(확대)
2011.10	홍콩	4,000(확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요국 통화의 외환거래 비중 >

(단위 : %, 배)

	2004 (A)	2007 (B)	2010 (C)	C/A (배)
미 달러	88	86	85	0.9
유로화	37	37	39	1.1
일본 엔화	21	17	19	0.9
중국 위안화	0.1	0.5	0.9	9
영국 파운드	17	15	13	0.8
총 통화	200	200	200	-

자료 : BIS.

주 : 1) 일평균 거래 기준.  
2) 각 년도는 4월 기준.

○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자본시장의 개방 및 발전을 통해 하드커런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핫머니 유출입 등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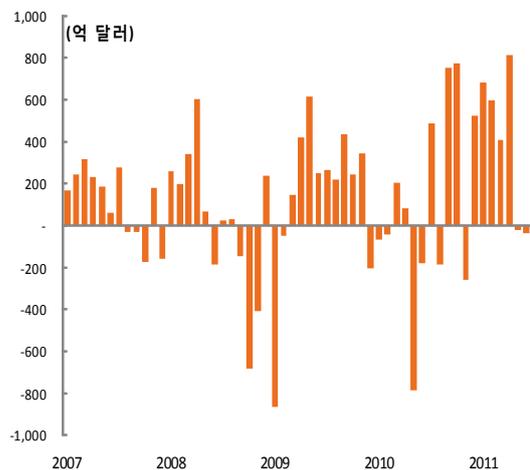
-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으로 위안화가 중국 역내로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건립할 계획이어서 자본계정의 실질적인 개방도 이 기간 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
  - QFII나 QDII<sup>5)</sup> 등 확대로 역내·외 간 위안화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며 위안화 금융상품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 개방화가 빨라지면서 핫머니의 유출입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역외 위안화의 역내 유입 증가, 위안화 FDI 증가 등 자본계정 개방화 진전으로 중국 본토로의 핫머니 유출입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정치를 적용하면, 2009 ~ 2010년까지 중국내로 유입된 핫머니는 약 3,175억 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출입이 크게 증가한 상태임

< 자본 계정 개방화 전망 >

	개방화 전망
위안화 자유태 환조치	- 2006년 : 상하이 푸둥(浦東)을 시범으로 소액 외환 창구개설 - 2008년 : 베이징, 상하이에 내국환/외국환 환전서비스 - 2009년 : 원자바오총리가 2020년 상하이에 국제금융센터 건립 시사
위안화 유출입 전망	- 역외 위안화의 역내 진입 증가 - 위안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 QFII, QDII확대, Mini QFII, 국제판, QFLP 활성화

주 : 1) Mini QFII는 위안화 펀드를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2)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 사모펀드 투자 허용제도.

< 중국내 핫머니 유출입 추정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중국국가통계국.  
 주 : 핫머니는 '외환증가액-무역흑자-직접투자유입액'을 의미함.

5)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적격외국인투자자를 의미하며, 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는 적격내국인투자자를 말함

#### 4.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위안화 하드커런시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력 강화, 위안화 무역결제 증가, 금융개방 및 발전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 전망
  - 경제의존도 증가 : 위안화 하드커런시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력은 내수위주의 성장 변화를 통해 더욱 끈끈히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경제의 대중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 패턴을 내수지향적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수출은 감소하고 소비재위주의 수입증가로 국내 수출구조의 변화가 예상
  - 무역결제 증가 :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중국무역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통화정책의 유연성 제약과 금융리스크 증대가 예상
    - 국내 수출입 결제통화로서 위안화는 각각 0.05%, 0.02%로 아직 미미하지만 우리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0%가 넘는 상태에서 앞으로 위안화 결제 증가 전망
    - 하지만, 위안화의 하드커런시 접근은 우리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유연성 유지와 금융리스크 관리에 상시적 교란 예상
  - 금융 및 무역허브 부상 : 위안화 역내시장 개방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한국도 홍콩등과 유사한 위안화 역외 금융 및 무역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위안화 역내시장 개방, 국제판 출범 임박, 위안화의 SDR 편입 추진 등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역외 금융 및 무역 허브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짐
- (과제)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시장 진출 확대 모색,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준비, 무역 결제통화 확대에 따른 리스크 검토 필요
  - 국내 금융기관은 QFII 자격 확대를 통해 중국내 위안화 채권시장 진출 모색
    - 한중간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QFII 자격을 획득 확대 등 중국 자본시장 진출을 겨냥한 적극적 전략 필요
  - 위안화가 차후 아시아 기축통화로서의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시적으로 외환위기 요인인 자본반전(Capital flow reversal)에 노출돼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화의 국제화 준비 필요
  - 기존의 원/달러 위주의 바스켓이 원/위안으로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 점검 필요

연구위원 한재진 (2072-6225, hzz72@hri.co.kr)